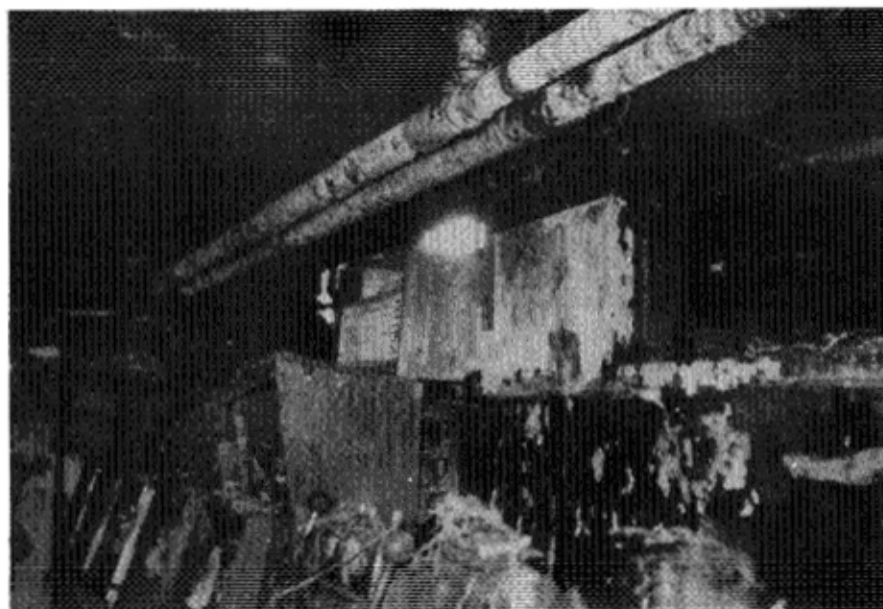


石油煖爐 過熱에 의한  
火災

1980. 1. 6

一點火時 높게 올려놓은 심지를 再調整치 않아—  
財産被害 約 2千萬원 (動産 不包含)

〈兩報寫眞 21番 參照〉



地下層의 罹災狀態

● 一般事項

建物用途：「호텔」  
所在地：서울 中區  
火災日時：1980. 1. 6, 18:55~20:50  
發火位置：地下層 「살롱」  
火災原因：석유난로 과열

● 建物 概要

空地 429m<sup>2</sup>, RC造의 地上 9層 地下 1層, 延面積 2,800m<sup>2</sup>, 客室 50個의 「호텔」建物

●火災狀況

지하층 「살롱」에서 종업원(男, 23세)이 정기휴일이던 당일 업무연락 관계로 동료 2명과 함께 석유난로를 피우고 대기중, 전화시 높게 올려놓은 심지를 재조정하지 않아 난로가 과열되어 연료통에 인화되어 급속히 불길의 확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옥내소화전은 작동이 불량하여 자체 진화에 실패하였으며 자동화재 탐지설비도 작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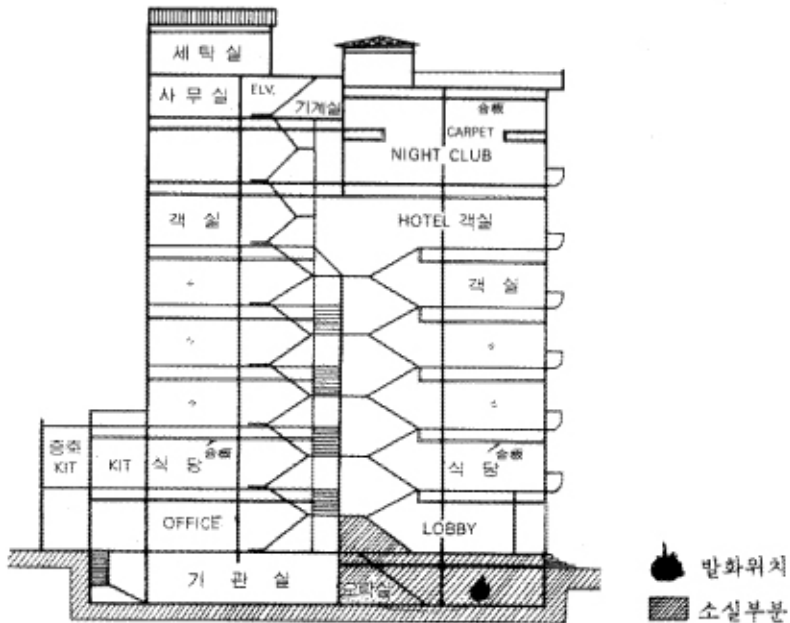
교환대의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소방차 10여대)는 가연성 내장재와 층별 방화구획 미비로 급격히 진전하는 火勢를 잡기 위하여 인근 건물과 他層으로의 延燒防止에 注力, 화재발생 약 2시간 후인 20:50분경 진화되었다.

●被害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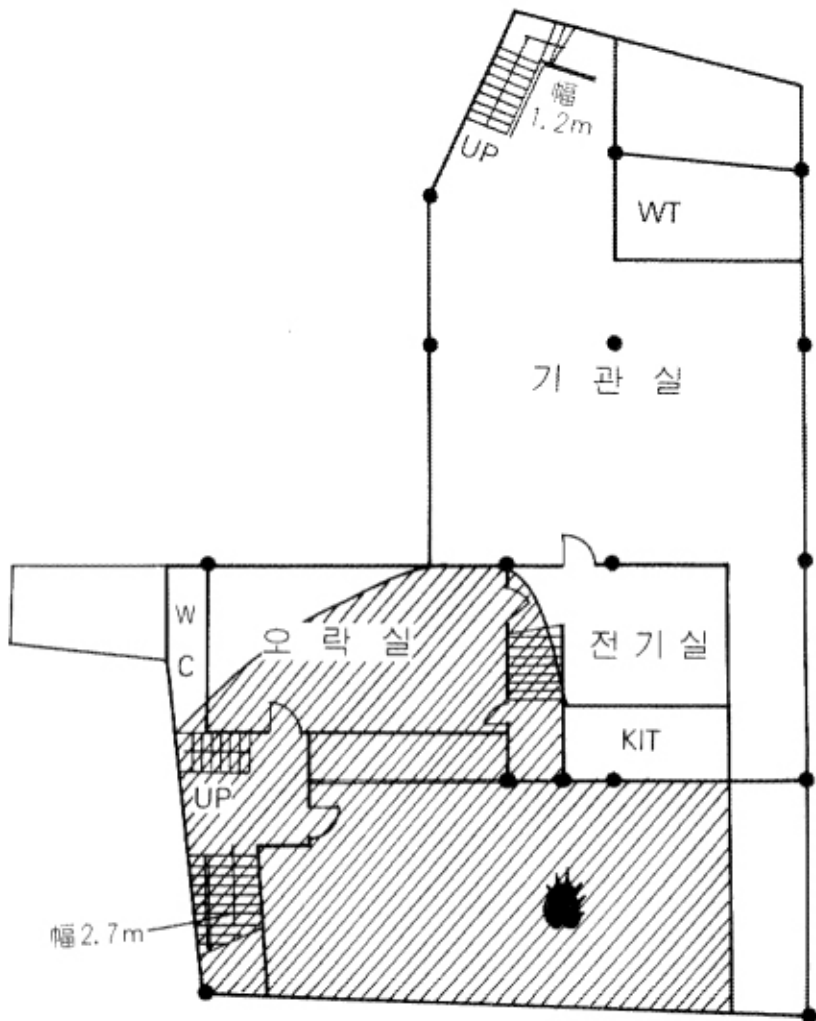
建物被害 約 1천1백만원, 변전설비, 냉·난방설비 등 建物設備被害 9백여만원으로 總 2천여만원의 財産被害를 입었다. (動産被害 不包含)

●問題點

1. 火氣使用施設의 管理 不徹底
2. 早期警報 및 初期消火의 失敗
3. 可燃性 内粧材의 多量使用으로 因한 急激한 火災傳播
4. 層別·面積別 防火區劃 未備로 上層으로의 延燒危險있었음.



建 物 斷 面 圖



地下層平面圖

●표는 發火地點, ▨는 燃燒部分 기타 나머지 부분은 燃損 및 水損部分